

어느 때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자비정신이 절실하다. 현대불교신문은 98년 한해동안 '1인(人) 1일(日) 1실천'을 연중캠페인으로 벌여나가고자 한다. 작은 실천이 사회의 큰 기쁨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여는 훈훈한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서울 이태원에서 조그만 점포를 운영하는 김형은보살(53·성주암신도)은 옷가지 신발 양말 장갑 등을 모아서 매년 4차례 관악산 성주암(주지 종연)에 전달하고 있다. 10월 8일에도 의류 신발 등 생활용품 53박스 분량을 북녕동포품기발교추진위에 보내 북한동포들 겨울나기 옷보내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금은 설날을 앞두고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물품들을 가게 한켠에 쌓아두고 있다.

그러나 실상 김보살은 자신이 보낸 물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모른다. 다만 이태원 주위상가와 집들에서 한창 한창 보내준 의류 등 물품들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연말이나 초파일, 명



절을 전후하여 정기적으로 성주암에 보낼 뿐이다. 김보살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주위상가 사람들이 재고로 남는 물건이나 가게정리시 보내준 물품들을 성당에 보냈다. 그러다 4년전부터 성주암이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실시하면서 사할에 보내게 됐다.

이런 김보살의 선행이 이태원상가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차츰 물품이 많이 늘어났다. 지금은 이태원 상가 뿐 아니라 주변 가정집에서도 동참하고 있다. 요즘은 한해 불우이웃돕기 물품을 3백여 박스나 전달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다보니 들어온 물품을 저장하는 것만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그저 누군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니 재발 저를 물추지 마세요."
 김형은보살의 말에서 자비행의 향기가 풍어났다.
 <김원우 기자>

인터넷 부다파야 <http://www.buddhapia.com>

해인골프장 적법 판결 23면

신정연휴로 7일신문 쉽니다

“화합하는 자린고비 살아남는다”

교계 신년사 '무소유' 강조 근검절약·자조자립·협동 등 정신무장 절실

한세대에 걸쳐 앞만 보고 달려온 고도성장의 신화가 하루 아침에 국가부도 위기로 뒤바뀐 지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정부·기업·국민이 자린고비의 정신으로 똘똘 뭉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요청된다.

새해에는 환율·금리 폭등, 기업도산, 초진축예산 등으로 물가폭등, 실업사태, 경기침체가 일거에 몰아닥치는 준(準)공황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각 부문은 물론 가계도 폭증 전야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뼈를 쥐는 절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대중 차기대통령도 "기가 막힌 현실로 새벽부터 밤까지 경제만 생각한다"고 말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종단 지도자들은 98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국민이 살길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소유 정신의 실천에 있음을 역설하고 올해는 전불교도가 예년과 다른 비장한 각오로 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인년 새해, 미증유의 국가적 수모를 딛고 다시 일어설려면 근검절약 자조자립 합심협력의 정신과 그 실천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금 우리 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은 상구보리 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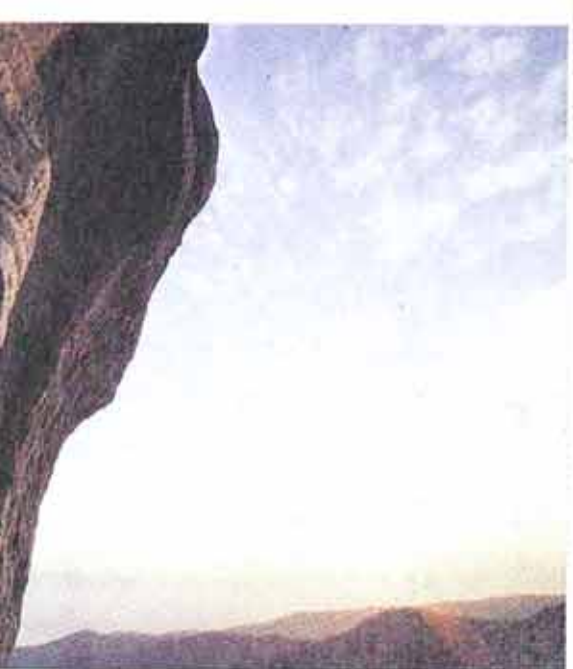
중생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봉행하지 못한 불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며 불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지혜와 자비정신을 구족한 자비원만(慈悲圓滿)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전태종총장 도용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담담한 경제위난을 꼭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세워야 한다"고 당부하고 "6·25의 폐허 위에 경제성장을 창출하였던 민족의 위대한 힘과 지혜를 다시금 발휘하자"고 호소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안국스님은 "무엇보다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 근검절약과 내림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생존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짜고 각오와 의지를 재다짐하는 원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사찰과 교계단체도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소비성 행사를 지양키로 하는 등 경제살리기 지원을 마련해 실천운동에 들어갔다. 백양사 월정사 금산사 등 조계종 교구본사들과 생명나눔실천회, 각 사찰연합회는 최근 잇따라 교구총회와 경제살리기 법회를 열어 절약생활화운동을 실천키로 했다.

<관련기사 22면>



“희망의 해 떠오른다” 무인년의 새해는 어느 때보다 새롭다. 경제대란의 첩첩산맥 너머에서 온국민의 희망을 안고 떠오를 듯이 희망도 내 한마음에 들어있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나. 저 찬란한 일출에 자취를 감추는 어둠을 보아라"고 말씀하시는 듯하다.
 <경주남산 신선암 마애보살상 앞에서 고영애 기자>

습습이 불을 즐기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이다. 실제 물가상승과 세금증가, 임금동결로 가계의 실질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으며, 체면치레를 위해 부풀려진 각종 경조사비의 거품을 이 기회에 빼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맥주와 담배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1년에 4조4천억원, 승용차를 출·퇴근 때 2인 1조로 함께 타면 1조6천억원이 절약된다.

정부도 "정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을 제정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차식 전동리, 내은사인, 육의 조맹기구 등은 해가지고난 뒤부터 자정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 편의점과 상점의 실내조명은 일반 사무실의 적정 조명인 3백룩스 이내로 억제된다.

오뚜기식품은 사무실 집기를 20년 이상 쓰고 종이 뒷장까지 알뜰하게 챙겨 쓰는 자린고비 정신으로 69년 창사 이래 한해도 빠짐없이 흑자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 회사만의 사례일 수는 없다.

이제 불자들이 각자가 교계지도자들의 호소에 화답해야 할 차례다. 낭비요소를 과감하게 차단하고 단 한문이라도 아낄 수 있는 일이라면 곧 실천에 옮겨 자조자립에 동참하고 신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정신적인 성숙도를 보여주는 불자들의 숭선수행이 요청된다.
 <정성운 기자>

이때마다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종단 지도자들은 98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국민이 살길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소유 정신의 실천에 있음을 역설하고 올해는 전불교도가 예년과 다른 비장한 각오로 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인년 새해, 미증유의 국가적 수모를 딛고 다시 일어설려면 근검절약 자조자립 합심협력의 정신과 그 실천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금 우리 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은 상구보리 하화

습습이 불을 즐기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이다. 실제 물가상승과 세금증가, 임금동결로 가계의 실질수입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으로 어렵고 눈물겨운 국난의 시기를 맞이
 현대불교신문이 정성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합장

이태원·이태순씨 공동수상 본사 신행수기 공모 대상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한 제3회 신행수기 대상에 이태원씨의 '백일기도'와 이태순씨의 '자비명 법등명'이 공동 선정됐다. <관련기사 14·15면>

총 1백2건의 응모작 가운데 우수상에는 박은희씨, 특등상에는 김연정, 조명숙, 김재화, 안금숙씨가 각각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24일 오후2시 본사 녹수청산.

본사 사령
 위촉 본설위원
 성필스님(강남포교원장)
 성태용교수(건국대 철학과)
 (1998년 1월 1일자)

98 신년특집 32면 발행

새 대통령에 보내는 큰스님 법어 ③
 元旦 인터뷰 ⑤ 무인년 신행캘린더 ⑥
 시암련 설문 ⑦ 세계 불교사이트 설문 ⑧
 시방세계-도량석과 아침예불 ⑩
 수행한담-월하스님 ⑫⑬ 호랑이와 불교 ⑭
별지특집 21세기와 禪
 프롤로그 ⑮ 세계의 선불교 ⑯
 대담 '21세기 불교 왜 선인가' ⑰
 선의 실제와 효과 ⑱⑲ 선문화 ⑳

신행수기 당선작 발표 14·15면

최고의 기술로 신뢰받는 기업-효성중공업

전력사업부
 산업에너지의 핵심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전사업부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업부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건설사업부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경쟁력있는 기술,
 우리 산업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술-
 효성중공업은 선이 굵은 첨단 기술로
 우리 중공업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ttp://www.hico.co.kr>